

‘여성화된 빈곤’을 통한 전후소설 연구

— 박경리의 『표류도』(1959)를 중심으로

박진영*

요약

한국전쟁이 야기한 비극적 참상 가운데 ‘여성화된 빈곤’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전쟁과 빈곤은 긴밀히 연관되지만, 전후 빈곤의 여성화는 전쟁의 결과물만은 아니다. 그것은 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 내부에서 귀결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여성 빈곤은 사회체제와의 접촉면에서 결정되며, 당대의 지배규범과 이념의 개입으로 구체화된다. 빈곤은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체이되 전후의 위계화된 성별구조와 지배담론은 젠더에 따라 빈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 대응 또한 다르게 결정지었다 할 수 있다.

박경리의 초기 장편 『표류도』(1959)는 전후시기를 배경으로 빈곤서사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특히 여성의 ‘감추어진 빈곤’을 포함해 당시 심화되어가는 속물화 현상이 빈곤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직업여성의 노동이 새로운 배제와 박탈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50년대 후반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절대빈곤을 겪는 시대였지만, 여성에게 가난은 물질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적 결핍만이 아닌 배제와 차별, 불안과 소외를 야기하는 이중 구조의 운상이었다. 이 글은 전후여성의 빈곤을 다각도에서 살핌으로써 박경리 초기 작품세계의 연구지평을 넓히고, 나아가 전후소설에 나타난 빈곤과 노동, 계층의 관계망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젠더화된 빈곤, 숨겨진 빈곤, 한국전쟁, 직업여성, 사회적 배제, 속물화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전후의 빈곤 위험과 빈곤의 여성화
3. 직업여성의 노동과 사회적 배제
4. 젠더 내 계층 분화와 전후 속물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박경리의 초기장편 『표류도』(1959)에 나타난 여성 빈곤을 통해 전후 빈곤서사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한국전쟁은 전쟁고아, 미망인, 도시 부랑인, 피난민 등을 양산해 빈곤의 참상을 극화했지만, 빈곤을 ‘여성화’한 계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후과여성, 전쟁미망인에 대한 양질의 연구가 축적돼 있지만,¹⁾ 전후의 여성 빈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상황이다.²⁾ 빈곤은 전 세계에 걸쳐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상시적 문제이기에 그 자체로 새롭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은 주제인 것은 아니다. 특히 50년대 소설사에서 빈곤은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기본 배경이 되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을 특정해 초점화한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이 글은 여성화된 빈곤을 통해 50년대 문학연구의 주제론을 다각화하는 한

1) 『표류도』에 한정하자면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인문학연구』 47, 2014; 김은하,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승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56(1), 2017;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2011.3;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여성문학연구』 10, 2003.

2) 50년대는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은 자연스럽게 제거될 거라 믿었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여성이 빈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특별히 관찰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경제학자들이 빈곤보다 성장에 더 관심을 두듯이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빈곤이나 곤경보다는 여성의 ‘발전’에 더 주목해왔다”(이혜경·최은영,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4, 1997, 155면) 할 수 있다.

편, 젠더와 빈곤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성화된 빈곤은 전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인 동시에 전후과여성의 기존 논의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박경리의 『표류도』(1959)는 『애가』(1958)에 이은 두 번째 장편소설로,³⁾ 그간 주로 멜로드라마 규약에 충실한 연애서사⁴⁾ 내지 여성인물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⁵⁾ 그런데 『표류도』는 전후의 빈곤과 사회 불평등, 속물화와 계층변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여성인물의 시각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사회성 짙은 멜로드라마 내지 페미니즘적인 전후소설로 읽을 수 있다. 50년대에는 강신재, 한말숙 등 “여성작가들의 양적 팽창과 함께 여성 주인공의 내적 목소리가 소설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힘으로 발견”⁶⁾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류도』는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작품에 속한다. 이 글은 선행연구를 이어받으면서도 여성빈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박경리 소설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3) 1959년 《현대문학》(2월~11월)에 연재된 『표류도』는 단편창작에서 장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소설로,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애가』, 『성녀와 마녀』와 함께 초기 장편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4) 강현희와 이상현의 불륜에 주목한다면 『표류도』는 통속적인 대중소설로도 읽힌다. 살인, 감옥행과 같은 우연성에 토대한 극적 사건들과 완전한 삼각관계는 아니더라도 두 남성인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구조, 갈등상황에서 종종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감정적 태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소설은 안정적인 대중서사의 구도를 따르지 않으며 인물의 감정 또한 통상적 멜로드라마의 과잉된 정서표출과는 거리가 멀다. 낭만적 연애와 금지된 사랑의 지속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은 아닌 것이다.

5) 전자와 후자 각각의 대표적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혜린, 「박경리의 『표류도』에 나타난 사랑의 정동」, 『이화어문논집』 45, 2018; 김원희, 「박경리 전후 장편소설의 '사랑서사' 연구」, 『비평문학』 68, 2018.6.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여성문학연구』 50, 2020; 김예니,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47, 2019; 김은하,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비교문화연구』 57, 2019.12; 현애순,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 연구』, 제주대 석사, 2014.8; 홍순애, 「1950년대 소설에 재현된 '법'과 '젠더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44, 2018.

6) 강지윤, 「원한과 내면-탈식민 주체와 젠더 역학의 불안들」, 『박경리 문학과 젠더』, 마로니에 북스, 2018, 124면.

그렇다면 왜 하필 빈곤이고, 여성화된 빈곤인가. 전후복구와 국가재건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50년대 후반, 빈곤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전쟁의 폐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어 일상이 안정화된 시점이라 해도, 50년대 말에는 여전히 피폐하고 혼탁한 사회질서 속 재건 담론이 전 영역에 걸쳐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빈곤의 감소와 퇴치는 전후여성에게 이중의 난제로 다가온다. 빈곤은 소득의 부재 내지 자원의 결핍으로 설명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불평등에 토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50년대 후반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절대빈곤을 겪는 위기의 시대였지만, 여성에게 가난은 물질적 결핍만이 아닌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이중구조의 온상이었다. 빈곤은 50년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를 전면적으로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젠더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빈곤’과 ‘젠더’를 교차해볼 때 전후소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빈곤 담론에서 빈곤은 그 정의의 다양함만큼이나 “특정한 사회 내, 특정한 시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⁷⁾되기도 한다. 빈곤은 한 사회의 문화적·이념적 구조에 토대하기도 하지만, 불안소외와 같은 징후로서의 빈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다. 가령, 가부장제의 위계화된 성별구조가 젠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빈곤을 경험케 하고 그 대응 또한 다르게 결정짓는다면, 빈곤은 한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붕괴를 야기하는 낙인찍기를 수행하기도 한다.

빈곤이 불평등과 관련 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빈곤의 여성화⁸⁾는 박경리 소설에서 본격화되지 않은

7) 김지현, 「빈곤의 정의: 다면성과 측정의 한계」, 『국제개발협력』, 2015.2, 14면.

8)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개념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였다. 김지현, 위의 글; 노혜진,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중앙대 박사, 2012.8; 김혜영·이은주·윤홍식,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1),

테마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표류도』를 중심으로 젠더와 자본(빈곤)의 관계만이 아닌⁹⁾ 전후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상을 배경으로 ‘숨겨진 빈곤(hidden poverty)’의 의미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표류도』에 나타난 역사와 현실의 탐색은 이후 『시장과 전장』을 거쳐 『토지』로 이어지는 박경리 문학세계의 도정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전후의 빈곤 위험과 빈곤의 여성화

한국전쟁에 의한 변화와 위기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났지만, 경제적·생활적 측면에서 그 영향력은 이념적·정치적인 것에 못지않게 강력한 것이었다. 전쟁 직후는 누구나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지만, 50년대 후반은 특히 미국의 경제원조가 감소하고 사회 전반의 부패의 만연으로 궁핍과 혼란상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있었다.¹⁰⁾ 이 시기 “삶을 규정하는 주된 요인은 전쟁의 위협에서 이제 경제적 빈곤으로 대치”¹¹⁾되기에 이른다. 전후의 근대성 확보는 재건 논리를 뒷받침하는 인식

2005; 이혜경·최은영, 앞의 글; 정재원 『숨겨진 빈곤』, 푸른사상, 2010.

- 9) 빈곤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제이므로 다차원적 빈곤 접근이 중요하다. 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 소득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주장한 센(Sen)의 실현가능능력 접근과, 사회제도 및 구조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리에 주목한 사회적 배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노혜진, 앞의 글, 32-36면 참조)
- 10) 보다 구체적으로 김대환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1950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의 절대빈곤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207면)다. 특히 “미국의 원조가 1957년 절정을 이룬 뒤 다음 해부터 격감하기 시작”하자 “1958년부터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황에 빠져들”게 된다. “몇 년간 캐조를 보이던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화의 진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222면) 50년대 말의 이러한 불황은 “생산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50%를 웃도는 상황”을 낳게 되고, “정치적 경직과 부정부패에 자극되어 결국 419혁명으로 이어”(223면)지는 배경이 된다.(김대환, 「1950년대 후반기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한국현대사의 재인식4』, 오름, 1998)
- 11) 허은, 「전후(1954~1965) 한국사회의 현대성 인식과 생활양식의 재구성」, 『한국사학보』 54,

이되 현실적으로 타개해야 할 우선과제는 빈곤의 해결이었다 할 수 있다. 전쟁의 비극을 피해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생존의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 문제가 부과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경리의 『표류도』¹²⁾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다방 마담으로 공적 영역에 진출한 직업여성 강현회를 주인공으로 한다. 현회는 과거에도 S대학교 고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해야 했는데 찬수의 죽음으로 미망인이 된 현재 빈곤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있다. 소설에서 가난은 먼저 수사적 고난이 아닌 절박한 현실로 다뤄진다. ‘돈’은 서사의 진행 내내 현회를 움아매며 구속한다. 다방 경영과 연애, 살인, 감옥행의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러하지만, 소설에는 채권자가 순채에서 계영으로 바뀌게 된 이유와 재계약 장면, 이자 반환을 위해 이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는 사건 등이 세세히 묘사된다. 순채에게 70만환을 빌려 일을 시작한 현회는 일 년 반 동안 매달 7만환의 이자를 내는 중이다. 그동안 지불한 이자만도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지만, “어머니가 장결핵에다 복막염을 앓고 기어이 수술까지 했으니 그만하면 경제의 난맥을 알아볼 일이다.”(7면) 현회는 다방에서도 뜨개질을 멈추지 않을 뿐더러, 이후 바느질기술을 익혀 출감 후엔 저고리 짓기를 하는 등 쉼 없이 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와해는 주지하다시피 전후여성의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는 일차 요인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부재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여성 빈곤율, 빈곤취약성의 증가가 이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빈곤이 왜 여성화되고 그 양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적 지표만으로는 젠더화된 빈곤의 구체적 경험과 경로, 그것이 가로놓인 맥락과 의미 등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는 여성 빈곤을 설명하는 가장

2014.2, 321면.

12) 작품 인용 시 『표류도』(마로니에북스, 2013)에 의해 면수만 표기함.

대표적인 용어로, 빈곤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실제 비중에 의해 뒷받침된다.¹³⁾ 서구에서 1978년 등장한 이 개념은 이후 빈곤연구에서는 현상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라는 성 범주로 인해 빈곤의 위협성이 증가하는 사회의 성불평등 구조”¹⁴⁾에 주목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여성 빈곤의 연관성을 분석”¹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생산재생산되는 과정, 계층, 그리고 구조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¹⁶⁾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¹⁷⁾

50년대의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작가 박경리는 용어의 본격적 사용에 앞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충격과 자전적 요소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¹⁸⁾ 주로 전쟁미망인 서사에서 여성 빈곤이 재현된다면, 『표류도』에서는 전쟁의 피해자 외에도 대학을 나온 엘리트여성이자 다방 ‘마돈나’를 경영하는 직업여성, 그리고 노모와 어린 딸, 이복동생을

13) 이는 여성들이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의 경우 79년의 연구 결과, “성인 빈곤층의 66%, 노인빈곤층의 70%, 빈곤가구의 50%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후 여러 국제기구가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인용하면서 여성빈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노혜진, 앞의 글, 14면)한다. 또한 여성의 빈곤 위험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빈곤의 여성화” 명제가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굳건하게 입증(183면)된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14) 김혜영·이은주·윤홍식, 앞의 글, 8면.

15) 같은 글, 17면.

16) 같은 글, 8면.

17) 엄밀한 의미에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와 여성의 빈곤화(pauperization of women)는 다른 개념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개념의 도입 당시 빈곤층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반면,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성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빈곤 양상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뜻하는 ‘여성의 빈곤화’를 설명할 때에도 ‘빈곤의 여성화’ 개념이 활용된다.(노혜진, 앞의 글, 14-15면 참조) 이 글은 맥락에 따라 이를 혼용해 사용한다.

18) 「후후백백」(1956), 「불신시대」(1957), 「암흑시대」(1958)에서도 드러나듯, 전후사회의 부조리와 맞물린 여성의 빈곤은 작가의 초기 작품세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의식에 해당한다.

돌봐야 하는 보살핌노동의 주체 등 다양한 면모를 지닌다. 그렇다면 전후의 경제위기가 현희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①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필사적으로 경제적 균형을 잡아왔다. 칠십만 환 이상으로 빚이 쌓이지 않게 생활을 굴러 왔던 것이다. 그것은 펍 위태로운 상태였다. 자칫 잘못하다간 빚과 이자에 마돈나가 날아갈 판이었으니까.(8면)

②누더기를 걸치고 해골처럼 말라비틀어진 내 모습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니는 광경이 떠오른다.(196면)

인용문에는 경제적 위기의식과 실업에의 공포감이 드러난다. 전쟁 발발 전 현희는 “다만 학비와 먹을 것과 시간을 얻기 위하여 무진한 고생을 하”(47면)며 어렵게 학업을 마쳤지만, 50년대 말 가팔라진 경제 불황과 실업률이 급등한 상황에서 “졸업장 같은 것 휴지만도 못”(36면)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 무엇보다도 독립만이 최우선과제가 된 절박한 현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중압감이 빚을 통제하려는 그녀의 “필사적” 태도와 “누더기를 걸”친 “해골” 상상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빈곤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을 지배하는 요인이다. 소설에서 그것은 또한 불안과 공포감을 넘어 현희의 신경성 발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한 인간의 정신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현희는 홀어머니와 딸 훈아, 그리고 가출을 감행하는 고등학생 현기까지 돌봐야 하는 그림자노동을 수행한다. 수감 중 교통사고로 인한 훈아의 죽음은 돌봄의 공백에 의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여성 빈곤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에게 전가된 보살핌노동의 대가이기도 한 것이다.¹⁹⁾ 『표류도』에서 빈곤은 이렇듯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상호성 위에 출현한다. 곤궁한 경제 상태에 내몰린 여성의 위

19) 정재원, 앞의 책, 49면 참조.

기 상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박경리 소설은 빈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을 중첩시켜 이를 복합적 토대 위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미를 갖는다. 작가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빈곤층 일반의 문제가 아닌, 젠더가 개입해 빈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결정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빈곤에 ‘성’이 특정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성화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표류도』에는 전후복구와 국가재건 논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빈곤에 고통 받는 여성들이 다수 등장한다. 남편이 상이군인이 되자 식모, 식당일 등을 가리지 않는 상주댁, 유년시절 이북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월남하여 일 년 남은 중학교를 포기하고 다방레지로 취직한 광희가 그러하다.²⁰⁾ 이밖에 다음과 같이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는 거리 풍경과 이후의 수감생활에서도 ‘가난한 여성’은 늘 관찰의 중심 대상에 놓인다.

①합승이 종로 입구에 머물렀을 때 미군(美軍)하고 팔을 끼고 오던 여자가 미군의 팔을 풀어버리고 합승에 올라왔다. 새빨간 외투를 입고 검정 단화를 신었는데 몹시 추워 보이고 가난해 보인다.(66-67면)

②이곳 주민들의 범죄의 동기는 거의 다 애정문제가 아니면 빈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엔 사회라는 공동기구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또한 박해를 받은 조건이 반드시 개재되는 것이다. 그들의 범죄 사실에는 어느 뜻에서는 엄밀한 선악의 기준이 성립될 수 없다.(268면)

위의 인용문은 여성 빈곤이 사회적 배제의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②에 서처럼, 빈곤은 빈곤 이전에 한 사회의 불평등이 누적된 산물이기도 하다.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수감된 여인들이 그 한 예다. 화자는 이때 “사

20) “터서 피가 뺨 손”(79면)으로 식모살이를 하던 상주댁은 현회의 제안으로 다방 앞에서 “만 환 정도”의 밀천으로 “담배 장사”를 시작한다. 이후 남편과 함께 성실히 장사를 해 남대문에 점포를 얻게 된다. 반면 광희는 “단돈 칠백 환”(243면)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계를 훔쳐 감옥에 갇힌다.

회리는 공동기구에서 “박해를 받은” 이들의 “범죄”를 선악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여성 빈곤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한다. 직업교육이나 모자원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미비한 전후현실에서²¹⁾ 이들은 사회의 보호는 차치하고 철저히 소외받는 위치에 있다. 빈곤의 징표가 된 여수감인은 악을 표상하는 범죄자이기에 앞서 사회악의 피해자인 것이다. ①의 ‘양공주’ 또한 마찬가지다. 인용부분 이후에 남성 승객의 놀림감이 되어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이어지듯이, 이들은 빈곤에 더하여 낙인 대상이 된다. 양공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찍기는 빈곤의 여성화가 전통적 젠더규범에 의한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기인함을 드러낸다.

전후의 빈곤 위험은 성별과 무관한 전 구성원의 문제이되 젠더격차로 그 양상은 동일하지 않았다. 『표류도』에는 빈곤층의 남성인물 또한 등장하는데 전쟁으로 상해를 입은 상이군인과 사업 실패로 파산한 순재 남편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들은 빈곤의 적극적 해결보다는 가족·국가 내에서 가부장의 위엄을 고수하고 이를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여성이 빈곤을 타개해야 할 생계책임자로 재현됨에 비해, 이들은 궁핍하더라도 가부장적 위치를 고수하는 남성상의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한다.

이에 비해 작가는 쉽게 해소, 극복할 수 없는 여성 빈곤을 전면화한다. 단적으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된다. 여성 빈곤의 심각성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²²⁾에 있다. 상주댁의 작은 성공을 제외한다면, 출구 없는 여성빈곤은 전후소설의 일반적 특징에 속한다. 염상섭의 『미망인』(1954), 정비석의 『자유부인』(1954)·『민주어죽』(1955) 등에서 여성이 노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을 해결하거나 부를 성취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와, 부의 축적과 성취를 남성다움, 남성의

2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45-64면 참조.

22) 정재원, 앞의 책, 30면.

능력으로 보는 젠더적 관습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류도』에서는 특히 물적 결핍만이 아닌, 전통적 가부장제 시선과 혼탁하고 부패한 시대상이 중층적으로 개입해 그 해결을 어렵게 한다.

3. 직업여성의 노동과 사회적 배제

전술한 것처럼 여성 빈곤은 결과에 그치지 않고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정·사회·국가 내 불평등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쟁은 여성의 빈곤 취약성을 외화하지만, 여성 빈곤은 이밖에도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노동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소득 획득과 자원 분배과정에서의 빈곤의 심화는 여성의 노동 가치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은 빈곤 탈피의 기본요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후 빈곤의 ‘여성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류도』에서 여성 노동은 경제적 조건의 완화개선보다는 새로운 배제와 박탈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²³⁾

직업여성 현회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애쓴다. “경제의 난맥”으로 “커튼 하나 새것으로 갈아보지 못하는 경제형편”(7면)이지만, “노동을 팔았지 얼굴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자존심”(8면)으로 자신만의 세 가지 경영원칙—커피 맛, 친절, 고객에의 관심—을 고수하는 그녀는 직업적 자기실현에 충실한 전후여성을 표상한다. 하지만 전후의 시대 변화와 여성의 역할 이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모

23) 이와 관련해 노동의 기회 및 결과 배분의 양상, 노동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소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과 양육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적 담론 하에²⁴⁾ 이들은 허영의 발원지 내지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 비취지곤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해졌지만 ‘집 밖으로 나선’ 여성을 규제하는 전통적 사회규범의 폐쇄성은 강고히 유지됐던 점에서 여성 노동과 빈곤의 관계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의 공핍상에 가부장적 시선이 더해져 여성 노동은 평가 절하된다. 권위주의적인 가족·국가 재건 담론에서 일하는 여성은 손쉬운 차별 대상이 된다. 특히 전쟁미망인은 여성빈곤층 중에서도 그 취약성이 가장 심한 집단이었다. 미망인에 대하여 “동정과 함께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일관”하는 시선은 이들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 내지는 “전통사회의 윤리에 대한 파괴자”²⁵⁾로까지 보는 인식을 양산한다. 빈곤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현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①“그런데 지금은 뭘 하지?”/ “다방의 마담이랍니다.” (… “떡장수를 한 다던가? 뭐 음식점을 한다는 소문이더만 잘하는군.” (…) 계영이 아무 권리 없는 모욕을 나에게 던진 뒤였기에 그의 말은 불쾌했다.(30면)

②“다방을 한다면?” (…) “숙녀들도 갈 수 있는 곳이니?”/ 핸드백 속에 콤팩트를 집어넣으면서 서슴지 않고 말하면서 웃었다.(102면)

③“이런 곳에 있는 여자는 레이디가 아니니까 손쉽게 또 뒤가 귀찮지 않거든…….”(230면)

위의 인용문에는 노동에 대한 편견(①②)과 공적 영역에 진출한 여성을 성별화해 소비하는 시선(③)이 제시된다. “숙녀”, “레이디”가 아닌 여성의 구별 짓기와 직업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그러하다. 다

24) 1955년의 ‘어머니날’ 제정은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해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묶어 두려는 국가적인 여성 통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2』, 인물과사상사, 2004, 314면 참조)

25)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 『근대를 다시 읽는다1』, 역사비평사, 2008, 466면.

방업은 여러 손님을 상대하는 접객업이기에 그 불온성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전후 직업선택의 범위가 좁은 상황에서 다방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실제 많은 여성이 다방업에 종사했지만,²⁶⁾ 현회는 경멸과 멸시만을 마주할 뿐이다. 최강사와 재판장에서의 검사는 물론, “정의감이나 사회관”(97면)을 지닌 저널리스트 상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는 현회에게 다방을 그만둘 것을 네 차례 종용한다.

전후의 직업여성 담론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은 차별과 폄하의 시선이다. 이는 당시 “최하위 소수자 계층에 있었던 전쟁미망인”²⁷⁾을 향해 그 문제성을 배가시킨다. 젊은 미망인의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이들은 손쉬운 욕망의 대상으로 비취짐으로써 이중의 소외를 겪는다.²⁸⁾ 현회 또한 ‘불안’을 야기하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전후 경제적 피폐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갈망은 부의 축적을 추구하면서도 “변화 속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배제하려는 지향성을 표출”²⁹⁾하고 있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별도로 “전후 남성 부재의 현실 속에서 경제 활동을 했던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³⁰⁾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열망과 변화 속 불안의 차단은 당대의 동시과제였던 셈이다.

『표류도』의 여성인물은 주로 서비스직, 제조업, 시장 판매업에 종사한

26) “1956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한국전쟁으로 가장을 잃은 부녀자가 59만 명 생겨났으며” 생활난으로 여성들은 “다방업, 양재업, 미장원, 요리점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미혜 「여성과 가족의 반세기 삶」,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61면) 특히 전후 “도시의 팽창에 따라 행상이나 노점 이외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다방, 요정, 미장원 등이 무수히 생겨났다.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 2003, 261면)

27) 김현선, 「전쟁미망인의 경제활동과 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342면.

28) ‘박인수 여대생 간음사건’(1955년 6월)으로 인해 당시 사회적으로 정조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50년대 성담론의 주요 목표는 더욱 합리적인 논리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여성을 가정과 사회에 안착시키려는 것이었다. (강준만, 앞의 책, 260면)

29) 허 은, 앞의 글, 322면.

30) 이정희, 「전후의 성담론 연구」, 『담론 201』 8(2), 2005, 205면.

다. 노동의 성별분업이 분명하던 시절, 여성은 다방마담, 레지, 식모로 일 하지만 신문사 논설위원, 대학 강사, 출판사 사장, 문학청년은 남성이 담당한다. 이렇듯 위계화된 직업세계 질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감식안과 사회의식을 갖춘 엘리트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류도』에서 현회의 노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회에게는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다.

①“그렇지만 쫓겨난 직접적인 원인은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 “전 사생아를 낳았거든요.” (….) “아이아버지는 전쟁 때 죽어버렸거든요!”(33면)

②그러나 나는 몇 해 전에 학교라는 직장에서부터 축출당하지 않았던가.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신기한 일은 아니다.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투성이니까.(204면)

일터는 “불합리”를 재확인하는 공간, 당대의 인식이 동일하게 투영된 작은 사회이다. 공적 영역에 진출한 직업여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빈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 감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모욕감은 물론, 수치심을 참아내야 하는 등 “자신에 대한 정서적 보호를 위한 최저선을 계속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³¹⁾하기 쉬운 것이다. 작가는 빈곤여성에게 미혼모의 낙인을 더함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진 전후사회의 압력을 구체화한다. 그것은 여성가장으로서의 직업여성에게 대한, 그리고 정상가족의 규범 밖에서 사생아를 낳은 여성에 대한 낙인까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여성화된 빈곤은 이렇듯 낙인 받는 자(the marked), 타자가 되는 경험으로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³²⁾

31) 노혜진, 앞의 글, 150면.

32) 위의 글, 182면.

빈곤은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³³⁾ 현희의 빈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생계부양자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남성생계부양자 규범의 ‘존재’ 때문이다. 그것은 즉 남성부양자 모델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남성중심 사회에서 빈곤은 흔히 ‘여성화’됨으로써 역으로 가부장적 이념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 만들기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가 된다.

한편, 현희의 빈곤 대응—다방 영업이 어려워지자 번역 일을 모색하는 등의 행위성—은 남성부양자의 부재로 여성 빈곤이 환원될 수 없음을 예시한다. 소설에서 빈곤 여성은 전쟁의 피해자, 희생자로만 재현되지 않는다. 박경리는 현희를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있는 인물로 부조한다. 건물세 70만환을 빌린 상황에서 이자감당도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현희는 이상현과 김환규의 원조 제안을 거절한다. 남성가부장의 경제력에 의해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윤계영, 양수정과 달리, 현희는 다방업이 자신에게 독립적인 인간성을 선사해주는 것을 깨닫고 ‘마돈나’ 관리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적극 표출한다. 이는 결말부분에서 현희가 가부장적 인식을 지닌 이상현 대신 김환규를 선택함에 있어 그와의 결혼을 독립성을 지닌 채 표류하는 ‘섬’들의 느슨한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 과도 관련된다.

『표류도』는 고통을 호소하는 빈곤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박경리는 전후 빈곤 탈피를 위한 여성의 생존 노동으로부터 한 발 나아가, 사회적 배제와 박탈에 맞선 여성인물의 의식적 자기 정체화를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일이 주체적 자율성과 자유 획득의 원천임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³⁴⁾ 이것이 『표류도』를 빈곤의 조건에 맞서 여성의 정체성이 형성되

33) 정재원, 앞의 책, 247면.

34) 여성의 직업세계 진출은 “남성과 가정에 종속된 기존 지위를 탈피해 인간적으로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찾는 데 노동이 필수불가결한 조건”(김현선, 「1950년대 ‘직업여성’에 대

는 과정을 담은 성장의 서사로도 읽을 수 있는 이유이다.

4. 젠더 내 계층 분화와 전후 속물성

5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는 저개발의 전형적 개발도상국에서 서서히 자본주의적 산업화 단계로 이행해가는 과정에 있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선상에서 1950년대와 60년대를 연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 따르면, 50년대는 한국 경제발전의 형성기로 이해될 수 있다. 1950년대를 “한국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에 있어 그 이전과 이후 시기를 이어주는 연결점임과 동시에 분기점이 되는 시기”³⁵⁾로 주목한다면, 그것은 공백기만이 아닌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가 담겨지는 근원지”³⁶⁾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계층구조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때이기도 하다. 빈곤이 전통적으로 계급과 관련된다면, 이번 장에선 50년대 말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빈곤과 속물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화된 빈곤은 특히 자본주의적 재편과정에서 젠더 내 계층 분화로 인해 다양하게 분절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류도』는 전후사회의 속물화 현상뿐 아니라 상류층여성과 빈곤층여성의 간극, 속물들이 빈곤여성을 규정하는 방식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속물화, 소시민화는 주로 6~70년대와 관련해 논의되지만, 그 기원적 탐

한 사회 담론과 실제,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세계』, 한울, 2010, 336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35) 이현진, 「195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과 시대적 연속성」, 『역사와 현실』 105, 2017, 32면.

36) 위의 글, 24면.

색을 위해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토대가 새롭게 재건·정비되고 있었던 50년대 말을 주목해볼 수 있다. 화폐가치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자본주의의 작동이 본격화되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속물화의 연관성은 의미를 갖는다. 소득 격차는 자본주의화의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자 자연스러운 계급구조의 산물이다.³⁷⁾ 하지만 전후에 팽배했던 배금주의는 빈곤층여성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표류도』에는 계급에 의한 빈곤과, 빈곤이 만든 계급의 악순환이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특히 물신주의에 사로잡힌 속물들은 계급, 계층과 빈곤의 교차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빈곤은 소설의 주요사건-상현과의 연애, 최강사의 살해, 광희의 자살의 배면에서 이를 결정짓는데, 여성인물이 꿈꾸는 낭만적 사랑의 좌절 원인은 일차적으로 계급적 차이에 기인한다. 민우의 옷만 잡아도 피가 끓는다는 광희, 열정적 사랑을 내면에 간직한 현희를 현실에서 가로막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계급차이다. 빈곤에 취약한 여성인물은 계급격차 앞에서 열정을 스스로 회수하고 낭만을 차단한다.

한국이라는 좁은 풍토 속에서 그는 상류계급에서 자라난 사람, 나는 하류계급에서 자라난 여자다. 신과나 영화 같으면 다소의 낭만의 윤색으로 아름다운 비극이 하나 생길 테지만, 실제의 흰 벽과 부글부글 끓는 하수도 사이에 시(詩)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상현 씨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 풍겨지는 모든 것에서 내가 고립되고, 그것들 속에서 어이없는 광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14-15면)

“흰 벽”과 “하수도”의 거리가 예시하듯, 상현과의 로맨스는 현희에게 있어 계급갈등의 최전선이 된다. 결혼을 통한 계급상승의 꿈이 없기에 이는 “아름다운 비극”이나 “시(詩)”로 미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박경리

37) 이혜경·최은영, 앞의 글, 155면.

의 많은 여성인물에게서 볼 수 있듯, 현회의 결벽성과 고집, 강인한 생명 의지는 절대빈곤의 상황에서도 주체적인 성찰을 이끄는 동력으로 자리한다. 현회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계급의 형성배경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등 이지적 인텔리의 면모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로 관찰 되는 것은 젠더 내 계층 분화와 전후의 속물화 현상이다.

『표류도』에는 빈곤여성만 등장하지 않는다. 박경리는 전쟁의 상흔을 지닌 여성뿐 아니라, 해방과 전쟁의 격동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여성을 포함해 다양한 여성 삶을 조명한다. 이때 성이 빈곤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못지않게 여성 내 계급격차는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2차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다.

급변하는 현대사는 시대의 흐름에 재빨리 편승한 이들에게는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가령, 아버지 윤씨의 금력에 의해 상류층에 편입한 계영, 피난지에서의 중석 수출과 환도 후 제당공업으로의 전신을 통해 부를 쌓은 순재네, 땅 투기로 벼락부자가 된 문숙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전쟁 전후의 혼란기를 이용해 부를 비정상적으로 축적한 공통점을 갖는다. 『표류도』에서 식민지 시기,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굴곡과 파행성은 부의 집중화를 가능케 한 주요 배경이 된다.³⁸⁾ “급조귀족(急造貴族)”(31면)을 양산하여 젠더 내 계층구조를 새롭게 분기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계급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숨겨진 빈곤을 가시화해준다.

“대단히 한국적인 급조귀족들”(222면)을 대표하는 계영은 “해방 후 급

38) 이와 관련해 작가는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인물들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며 새롭게 형성된 지배층의 비윤리성을 비판한다. 그 중심에 계영의 아버지 윤국위가 있다. 해방 직전 금괴밀수사건으로 체포돼 미결수로 있었던 그의 전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기회로 전화한다. 그의 ‘형무소살이’가 “해방과 더불어 혁명지사니 망명객이니 하는 영똥스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결과”(31면)를 낳은 것이다. 이후 일인들의 여러 사업체를 접수해 부자가 된 그는 정객 노릇을 하다가 민의원으로 전신한다. 윤씨의 삶의 내력은 급변하는 정세 속 지배계급의 재편과 함께,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기원을 드러낸다.

격하게 이룩한” 부를 바탕으로 “도금된 그들의 광채”(31면)를 과시하는 인물이다. 대저택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그녀의 “설익은 귀족 취미”(223면)는 현회의 직접적 비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는 소설에서 개인적인 적대감을 넘어 전후 속물성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속물은 세속적·현세적 가치에 함몰된 존재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성을 함의하는 말이다. 인간의 행위성이 경제적 힘만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하향평준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속물성의 강화 또한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할 수 있다.³⁹⁾ 돈이 혼란한 시대상에 부상하는 원초적 수단이라면, 작가는 순재, 계영의 부침을 통해 전후 계층질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 또한 비영속적임을 보여준다. 순재네가 대규모 자본을 갖춘 ‘삼흥회사’와의 경쟁에서 파산한다면, 자본력을 앞세운 ‘가스등’의 등장은 ‘마돈나’를 폐업으로 이끈다.

박경리는 「불신시대」, 「암흑시대」에서 인간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료인, 종교인을 통해 전후의 배금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비해 『표류도』는 사회적 욕망이 돈에 보다 집중적으로 부착된 시대상을 배경으로, 돈의 교환가능성과 전능함이 여성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감옥이라는 공간에까지 침투하는지 제시한다. 다음 인용문에는 돈이 차별과 배제를 심화하며 젠더화된 빈곤을 결정하는 양상이 드러나 있다.

① 최 강사의 서툰지 않은 영어가 귀에 흘러 들어왔다. (...) “여자란 돈과 폭력이면 정복되는 동물이 아니오?”/ “저 여자도 돈과 폭력이면 그만인가?”/ “물론.”(229면)

② “밖에서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 병감으로 옮겨지는 거야. 병이 없는 사람도 돈이 있고 뺨만 좋으면 병감에 갈 수 있지. (...) 정작 병감엔 말이야, 앓는 사람보다 돈 있고 뺨 좋은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편히 있는 곳

39)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한국학연구』 32, 2014, 275면.

이라니까. 그래서 돈만 있음 이곳도 천당이라잖았어?”(248면)

“소문난 수전노”(186면)이자 “물질파”(62면), “장사꾼”(96면)인 최강사에 게 있어 돈은 최고의 신이다.⁴⁰⁾ 경제학자이기도 한 그는 탈빈곤을 위해 애쓰는 인물들 속에 “인생에 손해가 없이 살아야 한다”(150면)는 신념으로 매사 손익계산에 철저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소설에서 윤계영과 함께 갈등구도의 중심축에 위치하는 그는 ①에서처럼 여성의 독립적 인격체를 부정하고 “푸른 눈의 이방인”(228면)에게 돈으로 성을 거래하는 제안을 한다. 그의 성의식은 여성을 훈육·통제하는 가부장제 태도를 넘어 돈의 교환가능성을 절대화한 것으로, 현회의 성을 구두 매매하는 사건이 그 정점에 놓인다. 자본의 힘이 여성의 존엄과 독립성을 제거하는 폭력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②에서 감옥은 전후사회의 축도로 재현된다. 이때 주목할 것은 그것이 도덕적 ‘선악’ 이전에 현실의 ‘빈부’를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수감된 많은 여수인들의 사연을 작가가 세세히 설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감옥은 빈곤층이 분리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파도 병감에 갈 수 없는 광희의 예에서처럼, 감옥은 자본주의적 흐름의 예외 장소가 아니다. “아무리 병이 나도 돈 없는 죄수들이야 이대로 썩어”갈 뿐이다. “단돈 십 환, 내의 한 벌을 차입할 사람도 없는 고질된 광희”(248면)는 이후 현회의 부탁으로 이감되지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정신병동에서 자살하고 만다. 광희의 비참한 말로는 전후사회의 부패상을 증언하는 한편, 비체가 되어버린 여성화된 빈곤을 적시한다.

40) 돈이 갖는 “고유한 등가성과 교환가능성은 모든 것을 돈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돈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 “돈이 전능하다는 표상이 생겨”나게 한다. 또한 돈에 집중화된 가치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양적 크기로 환원해버림으로써, 더 큰 자본의 힘에 의해 조정되는 현실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14, 101면)

빈곤에 의한 절망과 만성적 박탈감은 한 인간의 심리적·정신적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⁴¹⁾

50년대를 이행기, 과도기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한 발 나아가 근대적 방향전환의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사회 공간”⁴²⁾으로 본다면, 『표류도』는 자본의 논리가 한국사회에 침투하는 양상과 함께, 이와 맞물려 있는 여성화된 빈곤의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젠더 내 계층의 구분선을 섬세하게 다룬다. 전후의 피폐한 현실 속 분투하는 생활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박경리의 인물들은 자본주의적 재편과 그에 따른 계층질서의 변화를 증언하는 역사적 존재들이기도 하다.

5. 나오며

박경리의 초기 장편은 그동안 주로 멜로드라마 규약에 충실한 연애서사 내지 전쟁미망인 서사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글은 박경리의 두 번째 장편 『표류도』가 50년대 후반의 다양한 사회현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젠더화된 빈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전후소설에 나타난 여성 빈곤은 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편재하는 상시적 사회문제가기도 하다는 점에서 빈곤에 대한 다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경제적 관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성의 숨겨진 빈곤을 밝히기 위해

41) 전쟁이 야기한 “변화의 주요 속성 가운데 하나를 속물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변화에 적응한 이들이 사회의 주동 세력이 되면서 속물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병리학적 성향을 띠면서 사회의 주변부적 존재가 되어갔다.”(소영현, 앞의 글, 287면)

42) 이희영, 「1950년대 여성 노동자와 ‘공장 노동’의 사회적 의미」, 『1950년대 한국 노동자의 생활 세계』, 한울, 2010, 346면.

서는 사회적 배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맥락, 그리고 빈곤 탈출이 어려운 이유 등을 다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전후여성은 물리적 빈곤을 넘어 배제와 차별, 삶의 질 빈곤, 낙인 등 비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감추어진 빈곤을 경험해야 했다. 이때 빈곤은 당대의 지배이념 및 가족국가와 같은 사회체제와 긴밀히 연동하여 재현된다. 젠더 규범과 관습의 문제가 그 중심에 놓인다. 특히 빈곤 여성이 경험하는 소외와 박탈감은 특정한 사회와 특정한 시점을 배경으로 그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이념적 구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여성화된 빈곤'의 용어가 7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에 앞서, 박경리는 개념 이전에 전후 현실의 한복판에서 이를 목도하고 그 문제의식을 자신의 작품세계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포류도』를 대상으로 50년대 여성화된 빈곤의 요인, 양상,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작가의 전후소설을 대상으로 빈곤서사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고찰할 때 그 의의가 충분해지리라 본다. 아울러, 통시적 관점에서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세계화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여성 빈곤의 상호관련성은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주제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표류도』, 마로니에북스, 2013.

2. 단행본

김덕영,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14.

권보드래 · 김수미 · 김준현 · 엄태웅 · 이명현,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윤해동 · 천정환 · 허 수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1』, 역사비평사, 2008.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정재원, 『숨겨진 빈곤』, 푸른사상, 2010.

토지학회 편, 『박경리 문학과 젠더』, 마로니에북스, 2018.

한홍수 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4』, 오름, 1998.

홍두승 편,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3. 논문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여성문학연구』 50, 2020, 177-195면.

김예니,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 47, 2019, 287-313면.

김원희, 「박경리 전후 장편소설의 ‘사랑서사’ 연구」, 『비평문학』 68, 2018.6, 82-109면.

김은실 · 김현영, 「1950년대 1공화국 국가 건설기 공적 영역의 형성과 젠더 정치」, 『여성학논집』 29(1), 2012, 113-155면.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 『인문학연구』 47, 2014, 277-301면.

_____, 「젠더화된 국가 재건과 잃어버린 열정: 박경리의 『표류도』(1959) 다시 읽기」, 『비교문화연구』 57, 2019.12, 1-24면.

_____,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숭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56(1), 2017, 37-62면.

김지현, 「빈곤의 정의: 다면성과 측정의 한계」, 『국제개발협력』, 2015.2, 11-38면.

김현선, 「전쟁미망인의 경제활동과 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597-605면.

김혜영 · 이은주 · 윤홍식,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

- 구』 44(1), 2005, 5-51면.
- 노혜진,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중앙대 박사논문, 2012.8, 1-225면.
-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2011.3, 151-167면.
-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한국학연구』 32, 2014, 273-313면.
-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 『여성문학연구』 10, 2003, 88-116면.
- 이정희, 「전후의 성담론 연구」, 『담론 201』, 8(2), 2005, 193-244면.
- 이혜경·최은영,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4, 1997, 142-185면.
- 허 은, 「전후(1954~1965) 한국사회의 현대성 인식과 생활양식의 재구성」, 『한국사학보』 54, 2014.2, 287-326면.
- 현애순,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2014.8, 1-76면.
- 홍순애, 「1950년대 소설에 재현된 '법'과 '젠더 정치학': 박경리 소설 『표류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4, 2018, 151-180면.

<Abstract>

A Study on Postwar Novel through
‘Feminized Poverty’
– Park Kyung-ri's 『Pyo-ryu Do』(1959)

Park, Jin-young

Among the tragic horrors caused by the Korean War, 'feminized poverty' can be said to be a topic tha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War and poverty are closely related, but the feminization of postwar poverty is not only the result of war. It is both a product of war and a result of society. Above all, women's poverty is determined at the interface with the social system and is embodi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dominant norms and ideologies of the time. Poverty is not limited to women, but the hierarchical gender structure and dominant discourse before and after allowed poverty to be experienc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gender, and the responses were also determined differently.

Feminized poverty is based on the cultural and ideological structure of a society, but it can be discuss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poverty as a sign of anxiety and alienation. This thesis aims to broaden the research horizon of Park Kyung-ri's early work world by examining the poverty of postwar women from various angles.

Key words: gendered poverty, hidden poverty, the Korean War, working women, social exclusion, snobbery

투 고 일: 2024년 5월 29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